

Daily Auto Check

2021. 11. 8 (Mon)



meritz 메리츠증권

자동차/타이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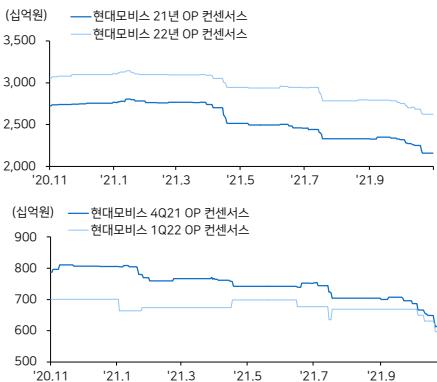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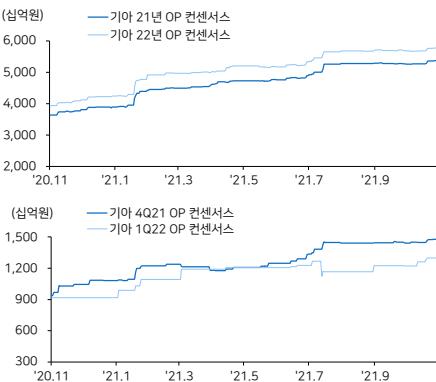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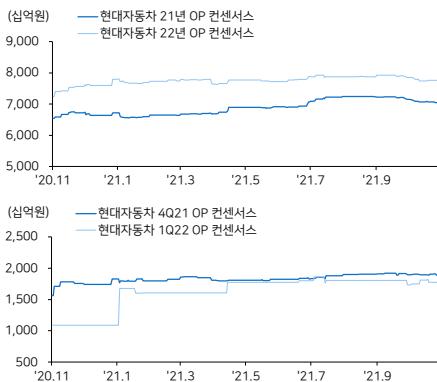
Analyst 김준성

02.6454-48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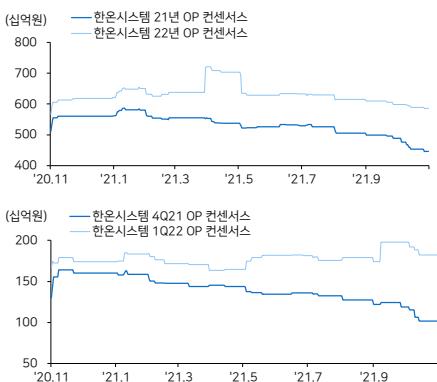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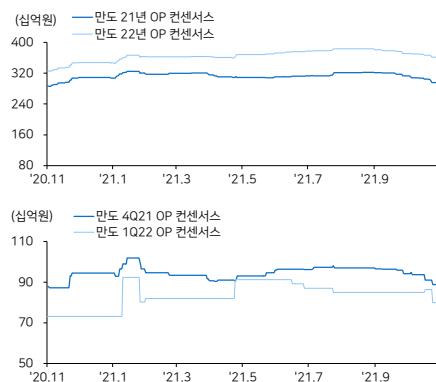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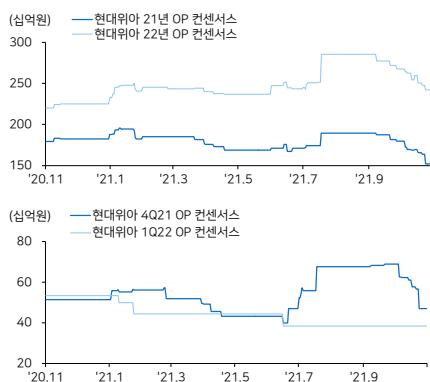
joonsung.kim@meritz.co.kr

커버리지 컨센서스 추이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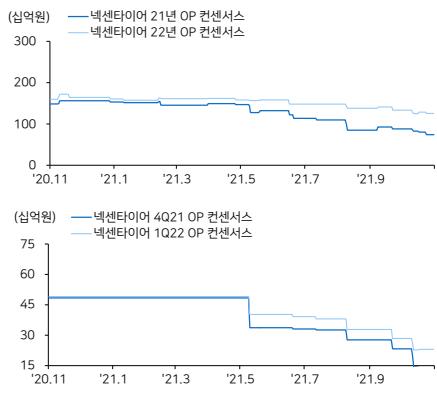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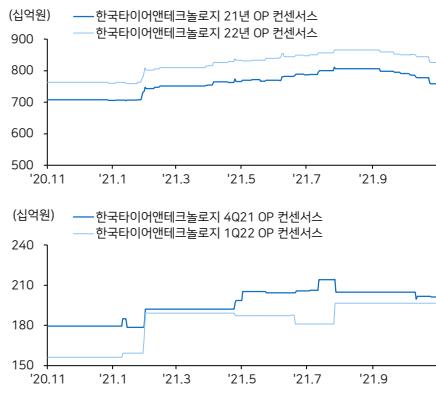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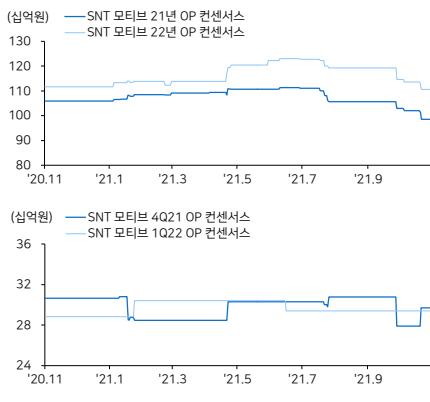
현대차 / 기아 /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 만도 / 한온시스템



S&T모티브 / 한국타이어 / 넥센타이어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현대차 / 기아 하반기 후판에 박차…코로나 이전 회복 노린다 (이데일리)

동남아지역 반도체 공장 재가동으로 반도체 공급에 다소 숨통이 트일 예정인보다 전 세계적으로 위드코로나에 나서면서 차량 판매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특히 현대차는 특별연장근로를 통해 막바지 생산량을 끌어올릴 예정.

<https://bit.ly/3bUgYVm>

기아 셀토스 10월 인도 베스트셀링 SUV 등극…현대 크레타 2위 (THE GURU)

기아 인기 소형 SUV 모델 '셀토스'가 지난달 인도 SUV 시장에서 가장 많이 팔린 차량으로 선정. 이와 함께 현대자동차 해외 전략 모델 '크레타'가 2위에 오른는 등 현대차·기아의 SUV 모델이 활약.

<https://bit.ly/3GSCRZY>

美 저가 자동차의 종말? "2만 달러 이하 차가 사라진다" (헤럴드경제)

첨단 편의장비와 대형화로 인해 미국 시장에서 저가 자동차가 사라지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됨.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패러다임이 전환하는 가운데 고가 경쟁은 더욱 침화될 것으로 전망됨. 미국 신차 가격은 평균 4.2만 달러를 형성.

<https://bit.ly/3CWFE1M>

Twitter users say 'yes' to Musk's proposal to sell 10% of his Tesla stock (Reuters)

일론 머스크가 보유한 Tesla 주식의 10%를 매각에 대한 찬반 설문에 350만 명이 참여, 57.9%가 매각에 찬성한다고 응답함. 투표 기한이 끝난 뒤 일론 머스크는 "어떤 결과도 받아들일 준비가 됐다"라고 트위터에 언급.

<https://reut.rs/3GXb5vr>

기아, 체코에 전기차 EV6 출시… "점유율 5% 목표" (THE GURU)

기아가 체코에 전용 플랫폼 E-GMP 기반 첫 전기차 'EV6'를 출시함. EV6 판매를 통해 내수 시장 점유율이 연내 5% 이상까지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기아는 현재 체코 자동차 시장 점유율 약 4.6%로 5위를 차지.

<https://bit.ly/31ywqel>

바이든, 1천400조원 인프라예산안 의회 통과에 "기념비적 진전" (연합뉴스)

미 하원이 1.2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예산안을 찬성 228표, 반대 206표로 통과시킴. 예산안은 지난 8월 상원에서 이미 처리된 바 있어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뒤 발효됨. 바이든은 이를 '미국 재건을 위한 블루컬러의 청사진'이라고 강조.

<https://bit.ly/3o7jW99>

미 자동주행 로보택시 상업운행 임박…GM자회사 최종허가 신청 (연합뉴스)

GM의 자동주행 사업부 '크루즈'는 로보택시의 유료서비스를 위한 허가신청서를 캘리포니아에 제출. 이가 받아들여지면 크루즈는 산프란시스코에서 로보택시 상업운행을 시작할 수 있게 됨. GM 전기차 '볼트'가 서비스에 이용될 예정.

<https://bit.ly/3F9qCH1>

화웨이 자동주행 R&D 책임자, '지리' 그룹으로 이직 (THE GURU)

화웨이 자동주행 개발팀 창립멤버 '전 치'가 지리그룹의 자동주행 사업 책임자로 영입됨. 지리자동자는 현재 모빌아이 등 자동주행 기술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100명 이상의 직원을 모집하며 자동주행 연구팀을 확장 중.

<https://bit.ly/3qe9M1M>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 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접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지침으로 오자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